

# 트럼프, 베이징서 시진핑에 '북핵·무역' 승부수

### 10일까지 2박3일 중국 방문

### 자금성 전세 낸 황제 대접

### 오늘 정상회담·기업대표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후 한국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北京)으로 향해 2박3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중국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 도착 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자금성(紫禁城)에서 차를 마시고 연회도 가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이상의 대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1인 천하'로 올라선 시 주석은 미중 정상의 자금성 연회 일정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라는 주요 2개국(G2) 위상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중국은 19차 당 대회 후 첫 방중 외국 정상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정해놓았을 정도로 공을 들여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수준을 넘어선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중국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용기 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해 시 주석과 자금성에서



자금성에 나란히 선 G2 중국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두 번째)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맨 왼쪽)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두 번째)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8일(현지시간) 베이징 자금성 방문 중 나란히 서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나는 것으로 방중 일정을 시작한다.

중국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우선 자금성에선 차 대접 일정과 경극 관람에 이어 만찬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특히 미중 정상이 자금성을 함께 산책하며 차를 마시는 모습으로 미중 우의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국을 찾은 미국 대통령은 만리장성을 방문하거나 자금성을 들르는 수준이었다. 이번에는 중국이 이날 하루 동안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고 트럼프 대통령 접대에 활용하기로 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차를 마실 장소로 청나라 건륭제가 차를 마시고 독서실로 쓰던 자금성 남서쪽 삼희당(三希堂)을 정했다.

중국 당국의 이런 차 대접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골프 회동 및 비공식 철관구이 만찬 등과 차별화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 방문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한 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연합뉴스

### 아베 '전쟁가능국' 속도

### 자민당, 개헌안 연내 준비

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일본 자민당이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킬 개헌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연내에 개헌 관련 4개 항목을 밀도있게 살펴볼 것"이라며 "내년 정기국회를 향해 (당차원 개헌안의) 준비를 한다는 입장을 당 간부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기우다 대행이 말한 4개 항목은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개헌 항목으로, ▲헌법 9조(평화헌법) 개헌 ▲교육무상화 ▲대규모 재해 등의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긴급사태 조항' ▲참의원의 '합구(合區) 문제 해소'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 중 헌법 9조의 개헌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헌법 9조의 기존 1항(전쟁·무력행사 포기)과 2항(전력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을 그대로 놔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고자 제안했었다.

아베 총리는 일단 개헌에 성공한 뒤 2항을 없애는 2단계 개헌으로 일본에 교전권을 갖게 해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미 공화당 '미니 지방선거' 참패

### 뉴욕·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선거

미국의 내년 중간선거 표심을 가늠하는 전초전으로 여겨졌던 '미니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빌 더블라지오 시장이 가뭄하게 '재선 고지'에 올랐고, 공화당 소속이었던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자리 2곳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1·8 대선'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도 반영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민주당이 이날 치러진 주요 지방선거 3곳에서 모두 승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랄프 노덤 후보가 공화당 에드 길레스피 후보에 비교적 큰 격차로 이겼다. 버지니아 주는 이른바 '경합주(swing state)'로 분류되는 지역으로,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의 지지율은 백빙이었다.

아시아 5개국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지원사격에 나선 것도 이런 정치적 상징성과 무관치 않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버지니아에 범죄가 들끓도록 내버려둘 것"이라며 민주당 노덤 후보를 맹비난했고, 공화당 길레스피 후보에 대해서는 "버지니아의 높은 범죄율과 나쁜 경제 성과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며 지지를 독려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필 머피 후보가 공화당 킵 코다노 후보를 눌렀다.

진보진영의 반(反)트럼프 정서뿐만 아니라, 크리스 크리스티 현 주지사에 대한 낮은 지지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했다.

앞서 버지니아와 뉴저지의 현 주지사는 모두 공화당 소속으로, 연일 제한 규정에 따라 불출마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빌 더블라지오 현 시장이 공화당의 니콜 말리오타키스 후보를 사실상 더블스코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연합뉴스

## 트럼프 국정지지도 36~37% 수준

### "당선 1년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 최악"

당선 1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36~37% 수준으로 바닥을 쳤다고 미 언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1년(8일)을 앞두고 지난 2~5일 성인 1021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의 지지율은 한 달 전에 비해 1%포인트 내린 36%로 나타났다. 반면 58%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CNN 조사에 의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부 출범 초인 지난 1월 31일~2월2일 조사에서는 44%였다.

1년 만에 바닥을 친 이번 조사 결과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무러 특검에 의해 폴 매너포트 전 대선 캠프 선대위원장 등 트럼프 대통령의 캠프 관계자 3명이 기소된 가운

데 나온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65%는 언론과 검찰에 의해 드러난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과 러시아 측 인사들 간의 접촉에 대해 우려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59%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접촉을 알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5일 내놓은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지지는 37%에 그친 반면 반대는 59%에 달해 순수 지지율은 마이너스 22%로 나타났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 이래 순수 지지율이 마이너스가 된 첫 대통령"이라며 "대선 승리 1주년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0년간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았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h2>영광 전원주택 매매</h2> <p>전원주택 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가 최근 리모델링 완료</p> <p>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시세가 1억3천만 매가 9천4백</p> <p>직매 010-6670-9800</p>	<h2>수기동 상가 매매</h2> <p>천변로 전망최고 20층 중 6층</p> <p>45평 (주차완비) 고급시설 (리모델링 5천만투자)</p> <p>보 1천 월 60만</p> <p>시세가 1억 5천 매가 9천7백 (용5천)</p> <p>직매 010-6670-9800</p>	<h2>경매 (주)대신경매</h2> <p>북구 용전동 (냉동창고) 토지 700평 건물 500평 감정가 35억 → 최저가 19억4천</p> <p>1) 서구 풍암동 아파트 지하상가 전용 50평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2억 → 최저가 2억</p> <p>2) 서구 벽진동 (주택) 토지 111평 건물 18평 감정가 2억2천 → 최저가 2억2천</p> <p>3) 북구 문충동 모야A,P,T (33평) 감정가 1억9천5백 → 최저가 1억3천6백</p> <p>4) 광산구 신창동 부영A,P,T (33평) 감정가 2억3백 → 최저가 1억4천2백</p> <p>5) 광산구 월계동 (침단지구 9층중 2층상가) 토지 23평 전용 86평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3억8천</p> <p>6) 장성군 북일면 (병원) 토지 33,659평 건물 1,505평 재활 요양병원 감정가 32억 → 최저가 23억</p> <p>010-7384-7800</p>	<h2>경매교육</h2> <p>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p> <p>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p> <p>3) 경매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p> <p>※ 공동 사무실 쓰실분 (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p> <p>010-6670-9800</p>
---	--	---	---